

- 1.종교다원주의 배경
- 1.동성애 반대
- 1.차별금지법 반대
- 1.자유민주주의의 수호

제1122호
5월 25일
2019년
토요일

牧羊新聞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예금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문의
02)2675-5181~3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 서울 다-07857 주간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거룩한 능력을 덧 입자’...예하성 ‘제68차 정기총회’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가르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종교다원주의, 공산주의 받아들일 수 없어...혼합주의, 차별금지법 반대
바른 복음전파위해 총회원 ‘한 마음’



신임 총회장
신재영 목사
새집전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68차 정기총회가 지난 5월 20일(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은혜와진리교회에서 ‘거룩한 능력을 덧 입자’(요 17:17)라는 주제로 열려 국가정세의 위기 속에 국가 안보와 핵폐기, 하나님의 뜻에 의한 평화정착을 위해, 한국교회의 비전 성장을 위해, 한국교회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온 종교다원주의 사상과 혼합주의를 비롯 이단 사아비를 배격하고,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 오직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기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1,500여 명의 총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총회는 이날 오전 10시 등록접수를 시작하여 점심식사 후 오후 1시 개회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에 앞서 총회장 임용제 목사의 인사말에 이어 총무 신재영 목사의 사회로 예배가 시작되었다.

임목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선후배 회원

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한다”고 전하고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총회원 모두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지난 회기 총회 임원들이 겸손한 자세로 헌신하여 주셔서 막중한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으며, 지난 일 년 동안 함께해 주고 또 기도도 후원해 주신 회원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계속해서 증경총회장 임종달 목사의 대표기도, 선교위원장 심용제 목사의 성경봉독, 은혜와진리교회 장로성가단의 찬양, 교단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의 설교로 이어졌다.

조용목 목사는 눅 6:43-44 말씀을 본문으로 ‘하지 않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란 제목의 설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본질적 변화를 입은 그리스도인은 특히 성직자는 종교다원주의와 같은 성경에 반하는 사상이나 무신론에 바탕을 둔 공산주의 체제를 받아들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에 동조하거나 돕는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역설하였다.

이어서 우리 교단의 정체성을 강조하며 “성경적인 비전, 기독관과 목회관, 바른 역사관과 가치관을 가진 목회자들이 모여서 사역하는 교단,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가르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좇아서 행하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 우리 교단에 속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함께 사명을 감당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특별기도로 ‘교회와 나라를 위해’, ‘성령충만 한 사역을 위해’ 김용덕 목사(증경총회장), 정부용 목사(전직 부총회장)가 각각 주례별 기도를 인도했다.

교단 총회장 임용제 목사는 지난 한 회기동안 교단 발전을 위해 헌신해준 교단 임원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총회장 임용제 목사는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로부터 공로패를 받았으며 부총회장 엄기설 목사와 총무 신재영 목사, 서기 이경진 목사, 재무 이은승 목사, 회계 조병희 목사는 총회장 임용제 목사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30년 근속자에 대한 근속패는 윤필중, 박정자, 이규호, 주덕영, 왕상엽, 문정부, 권용덕 목사 등 7명이 받았

으며 전국사모연합회장 윤금자 사모에게는 감사패가 증정되었다.

이어 교단 회계 조병희 목사의 현금기도, 장로성가단의 찬양, CTS기독교TV 황우중 경영본부장의 축사, 교단 서기 이경진 목사의 광고, 교단 증경총회장 김상용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전회원은 기념촬영을 하고 곧바로 사무총회로 모여 각종 업무 및 사업보고, 목사고시(고시위원장 김인규 목사) 합격자에 대한 인준에 이어 각 국, 각 위원회별 각종 사업보고 및 업무계획들을 처리했으며, 67차 총회 감사결과 및 결산보고 등이 통과되었다.

이어진 임원선거에서는 교단 헌법 제 84조와 교단 선거관리위원회 시행규칙에 의거해 총회장에 신재영 목사, 부총회장에 정의섭 목사, 총무에 이경진 목사, 서기에 정영진 목사, 재무에 한순남 목사, 회계에 김건수 목사가 각각 선출되었다.

신임총회장 신재영 목사(새집전교회)는 당선 인사말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교단의 아

름다운 전통을 따라서 섬김과 희생의 자세로 직임을 수행할 것”이라며 총회원들의 성원과 협력을 당부하였다.

신임총회장 신재영 목사 주례로 계속된 총회는 68차 총회 예산안 심의 및 결의, 각 지방교회 실행위원 자격인준 및 교단발전전에 관한 건 등을 결의하고 제68차 정기총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다.

제68차 교단 총회에서는 2008년 교단통합 이후 11주년을 맞으며 교단대통합 이후 안정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한국교회에 만연되어 있는 이단 사아비에 대한 불감증을 올바른 복음전파로 타파해 나갈 것과 목회자 재교육을 강화하는데 더욱 힘을 기울이고, 올바른 복음전파와 사수를 위해 온 힘을 기울여 창조질서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와 종교인 과세에 대한 바른 대처, 6월 1일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리는 쿼이축제 반대 국민대회 참여, 하나님의 창조섭리를 파괴하는 동성애를 반대하며 집요하게 한국 사회에 침투해 오는 이슬람의 세력을 효과적으로 막아내는데 뜻을 모을 것을 밝혔다.



공로패 - 총회장 임용제 목사



공로패 - 총무 신재영 목사



공로패 - 서기 이경진 목사



공로패 - 재무 이은승 목사



공로패 - 회계 조병희 목사

사이버목회대학원 과정 개설하기로

교단 정책위원회

교단 정책위원회(위원장 조용목 목사)는 지난 5월 20일(월) 오전 11시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에서 68차 총회를 앞두고 회의를 갖고 사이버목회대학원 과정 개설건과 은진지방회의 발간정 상정으로 25년 이상 목회사역을 감당해온 여성 전도사를 위한 명예목사 제도를 신설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날 모임은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의 인도로 증경총회장 김상용 목사의 대표기도 후 서기 이은승 목사의 회원점령 후 조용목 목사의 주재하에 회의가 진행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이버목회대학원 개설 요청과 관련문제가 많아 이를 검토한 결과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개설을 논의하게 되었



으며, 은진지방회의 특수한 목회상황을 고려해 교단 헌법 38조와 관련하여 25년 이상 목회사역을 감당해온 여성 전도사에게 명예목사 제도를 신설하는 안을 상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책위원들은 요청에 부응하여 제도를 개선하는데 뜻을 같이하여 두 사안을 통과 결의하였다.

선교사 백섭, 박형규, 고운정 목사 임직예배

교단 선교위원회

교단 총회 선교위원회(위원장 심용제 목사) 소속 선교사 백섭, 박형규, 고운정 선교사에 대한 목사임직예배가 지난 5월 20일(월) 68차 총회 후 오후 4시 은혜와진리교회 야기페스티벌에서 거행되었다.

이날 임직예배는 교단 총무 이경진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선교위원장 심용제 목사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교단 총회장 신재영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신목사는 사 41:10 말씀을 본문으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일’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목회사역을 감당하다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해 줄 것’을



당부하고 아울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충성을 다해 감당해 줄 것”을 강조한 뒤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일꾼들이 되어줄 것”을 말씀해 주었다.

인수위원장 총회장 신재영 목사의 집례로 이어진 임직식은 서약, 안수, 착의, 약수례, 공포, 임직증서(해) 수여, 부총회장 정의섭 목사의 축도로 임직예배를 마쳤다.

한교연, 가정의 달 맞아 사랑나눔 실천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에 정착금과 아기용품 전달

한교연(한교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이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5월 9일(목) 오전 11시 서울 상도동 사회복지법인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꿈나무' (원장 박미자 권사)를 방문해 지립장작금 200만 원과 아기용품(기저귀 물티슈) 등 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랑과 나눔을 실천했다.

한교연 여성위원회(위원장 김옥자 목사) 주관으로 마련된 이날 전달식에서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님과 여성위원장 김옥자 목사가 '꿈나무' 원장 박미자 권사에게 정착금 200만 원과 아기 기저귀와 용품 등 총 3백만 원 어치를 전달했다. 이어 박미자 원장이 인사하고 김효종 목사의 축도로 예배와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예배에서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는 설교를 통해 "우리는 살면서 건강과 명예, 부의 소망을 가지지만 이는 다 죽어 없어질 헛된 소망이며 오직 주의 말씀만은 세세토록 영원하여 천국의 소망만이 더욱 확실해



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한때의 실수로 사회적으로 담당하지 못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도 실패한 과거에 얽매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는 군포제일교회 여전도회가 모은 지원금 1백만 원을 여성위원회는 지원금 1백만 원과 아기 기저귀 아기용품 1백만 원 등 2백만 원, 총 3백만 원을 전달했다. 또한 권태진 목사는 어

비이날에 교인들로부터 받은 대형 캐네이션 꽃바구니를 원장 박미자 권사에게 전달하며 귀한 시역을 격려했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평화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꿈나무'는 미혼모들이 입소해 2년 동안 가정적인 거주공간에서 건강한 아동양육과 심리적 안정, 경제적 자립지원 등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침례교 한국선교 130주년 세계대회 개최

28명의 선교사 방한, 펜워대상 시상식 등 감사와 비전의 시간

한반도의 첫 침례교 선교사인 말콤 C. 펜워의 한국선교 1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장 박종철 목사)의 세계한인침례인대회가 '은혜로 130년! 다가올 침례교시대!'라는 주제로 4월30일~5월3일 강원도 홍천 비발디파크에서 성대하게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해오던 영적성장대회를 확대시켜 전 세계 각국의 한인침례교 목회자들도 참석하도록 문을 연 것은 물론 그동안 한국에서 한신했던 선교사 31명 가운데 28명이 초청되어 역사적인 감동의 순간이 펼쳐졌다.

그런가하면 한국 침례교 발전과 성장, 선교에 공헌한 지도자들을 선정해 펜워대상을 수상함으로써 한국 침례교단의 귀감으로 삼았다.

환영사를 전한 박종철 총회장은 "금번 총회에서는 말콤 C. 펜워 한국선교 130주년을 맞아 영적 성장대회를 확장하여 세계 한인



침례인 대회로 개최한다. 이를 계기로 해서 많은 침례교회들의 성장과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란다"면서 "펜워의 역사적·선교적 위상을 논의해서 현재 우리의 침례교회에 적용하고, 선교사님들을 초청해 감사를 전하며, 세계 침례교 목회자들과 교제의 기쁨을 나누는 시간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미주 남침례회 한인교회총회 총회장 최영이 목사(공동대회장)는 인사말을 통해 "130년 전,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지하

고 가난한 이 민족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펜워 선교사님의 신앙을 재조명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선교방향과 침례교단의 미래를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펜워는 바울처럼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으려고 복음이 들어간 적이 없는 곳을 찾아다니며 교회를 개척했다. 소례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할 때, 성도들이 서로의 미움과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함으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국교회 질서를 위한 대포럼 개최

한기총, 명성교회·서울교회 문제 등에 대해

제13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위한 뉴욕기도회

세기총, 한반도의 복음통일 위해 기도



(사)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최낙신 목사, 수석상임회장 윤보환 목사)이 하 세기총)는 지난 5월 10일(금) 오전 10시 뉴욕에 소재한 대동연회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소서(렘 1:10)'란 주제로 제13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뉴욕기도회를 가졌다.

세기총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기도회는 마기총 사무총장 이재덕 목사의 내빈소개, 이종명 목사(준비위원장, 세기총 공동회장)의 환영사, 최낙신 목사(세기

총 대표회장)의 대회사, 윤보환 목사(세기총 수석상임회장)의 진정한 통일, 시온이름'이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김명옥 목사의 대표기도, 권태진 목사(뉴욕교협 수석협동총무)의 한글기도에 이어 특별기도회는 정영준 목사(세기총 공동회장)가 '한반도의 비핵화와 통일을 위하여', 김연규 목사(세기총 부서기)가 '뉴욕의 복음화와 한인교회들을 위하여', 박진태 목사(침례교회한인지방회 증경회장)가 '혈'

고 굶주리는 북한동포들과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전희수 목사(글로벌여성교회 회장)가 '750만 재외동포를 위하여' 각각 기도를 하였다.

이후 세기총 2대 대표회장 장석진 목사가 격려사를, 뉴욕교협 회장 정순원 목사가 축사를 하고 세기총 대표회장 최낙신 목사가 준비위원장 이종명 목사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세기총 사무총장의 광고가 있는 후 통일 노래를 다같이 부르고 세기총 상임고문 박희소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세기총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는 세기총 기도회는 2017년 11월, 제1차 서울 통일기도회에 이후 LA, 독일, 몽골, 라오스, 경기도, 달라스, 오글라호마, 크로아티아, 대만, 하와이, 태국으로 이어졌으며 이번 뉴욕기도회가 13차 기도회임을 말하면서 14차 기도회는 5월 12일 필라에서 열리며, 15차 기도회는 인천에서, 16차는 미얀마에서 이어질 것임을 알렸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이하 한기총)는 지난 5월 9일(목) 오전 10시 30분부터 CCMM빌딩 12층 그랜드홀에서 '한국교회 질서를 위한 대포럼'을 개최했다.

'명성교회와 교단의 법적 무질서'라는 제목으로 발제한 황규학 교수는 "명성교회 사건은 김삼환 목사 이후 아들로 승계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1) 승계 주체는 특정개인이 아니라 당회와 교인총회, 노회라는 단체의 결정이 있었고, 2) 절차에 있어서 특정개인이 일방적으로 임명한 것이 아니라 당회의 추천과 교인의 청빙결의, 총회 헌법위의 28조 6항의 위헌해석, 노회의 청빙인준, 총회 재판국의 결정으로 절차의 하자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황규학 교수는 "나이가 연장통합 교단역시 교단의 헌법과 총회 폐회시 헌법위의 유권해석, 총회 재판국의 결정까지 상황이 끝

이 늦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총회장들이 헌법위 해석을 보고로 받지 않고 차기 총회가 재해석하고, 해석을 보류하는 등 교단의 교회법 무질서를 추구하고 있다"며 "교단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교단 헌법, 법리부서의 판단을 중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교회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제한 유정춘 박사는 "한국교회 질서회복을 위해서 서울교회 사건을 통해서 교회분쟁의 요인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서울교회를 개척한 목사가 은퇴하고 청빙한 후 임목사의 문제로 불만이 생기자, 안식년과 제사무투표제를 채택하고 실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규정으로 해결하려고 했으나, 후임목사가 제사무투표를 거부하고, 그를 따르는 교인들이 있어서 분쟁이 장기화 되고 있다"고 밝혔다.

KPGA, 강원 산불 후원금 전달...복구에 보탬되길

월드비전에 대회 상금 중 1천5백만원 기부

국제구조개발NGO월드비전(회장 양호승)이 한국프로골프협회(이하 KPGA)로부터 강원 산불 후원금 1천 5백만 원을 전달받았다.

후원금은 2019 시즌 KPGA 코리아 투어 개막전으로 열린 '제15회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 대회 출전 선수단이 나눔의 뜻을 모아 마련했다. KPGA와 KPGA코리아투어 선수회는 강원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해 사 용해달라며 대회 상금의 3%인 1,500만 원을 월드비전에 후원했다.

지난 5월 13일(월) 서울 여의도 월드비전 본사에서 열린 후원금 전달식에는 월드비전 나눔본부 전영순 본부장, KPGA 코리아투어



김형태 선수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형태 선수회 대표는 "후원금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소중하게 전달돼 아이들의 삶

의 개선 복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KPGA코리아투어 선수들은 골프를 통한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드비전은 선수단으로부터 받은 후원금을 강원 고성·속초 산불 피해지역 아동과 주민들을 위한 구호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월드비전은 지난날 강원 지역에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아동 가정의 신속한 회복을 돕기 위해 주거재건 및 생필품 구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미술 치료, 아동 놀이, 연극 등 아동보호프로그램(Child Friendly Space)을 통해 재난에 취약한 아이들의 정서적 회복을 돕고 있다.

포트폴리오 경진대회 열어 취업경쟁력 높인다

성결대학교

성결대학교(총장 윤동철) 대학일자리센터는 5월 9일부터 6월 5일까지 나란히 취업경쟁력-포트폴리오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업의 채용방식이 스펙 중심에서 역량 중심으로 이동하고, NCS기반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직무 수행 능력과 같은 직무적합도가 우선시 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경

험, 활동 등이 채용시장에서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취업현장에서 포트폴리오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포트폴리오의 개념부터 필요성, 작성법 등에 대해 제대로 배워 서, 자신의 커리어 목표와 관련된 비전과 활동사항을 담은 경쟁력 있는 포트폴리오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프로그램은 포트폴리오 작성법 특강, 포트폴리오 접수 및 컨설팅, 그리고 마지막 경진대회 최종발표 순서로 진행된다.

1단계 특강은 참가자 동기부여 및 제작방향 제시, 2단계는 포트폴리오 접수 및 1:1 개별 멘토링, 3단계는 실제 취업 과정에서 개인별 취업 전략으로 적용 가능한 방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중서 성결대 대학일자리개발처장은 "청년들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포트폴리오를 작성함으로써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취업시장에 뛰어들어 성공 취업을 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생명나눔 소중한 헌신 어려운 환우들 위해

6년째 부활절 헌금 '생명나눔' 후원...누적액 2,400여만 원

(제)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택 목사, 이하 본부)는 지난날 30일 오전 삼동교회(담임목사 오병철)가 본부를 방문해 생명나눔 후원금 448만 2,000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금은 교회의 지난날 부활주일

헌금으로 마련된 것으로 삼동교회가 부활절 헌금을 생명나눔 후원금으로 전달하기는 올해로 벌써 여섯 번째다.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삼동교회는 60여년의 역사 속에 다양한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힘써왔다. 특별히 지

난 2014년부터는 해마다 본부에 부활절 헌금을 기부하며 생명나눔 사업에도 앞장섰다.

첫해 280만 원의 헌금을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이듬해 330여 만 원, 그리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매년 420만 원이 넘는 액수를 기부하는 등 해가 갈수록 후원금에도 늘었다. 담임목사의 제안에 따라 2014년 처음 시작된 일이 이후에는 성도들이 먼저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하며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지금까지 전달된 후원금 총액만 2,400만 원에 달한다.

이에 본부 이사장 박진택 목사는 "한 번도 힘든데 매년 꾸준히 따뜻한 마음을 모아 주 감사하다"면서 "부활의 기쁨이 담긴 소중한 섬김인 만큼, 그 섬김을 받게 될 아들에게도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제4차 안디옥 선교포럼 개최, 6대륙에서 참가

‘선교사, 현지목회 해야 하는가?’ 주제로

사단법인 AWM(선교교회(이사장 신화석 목사)가 주최하고 AMF(안디옥선교포럼)와 KWMA(한국세계선교협회)가 공동 주관한 '제4차 안디옥 선교포럼'이 지난 5월6일부터 7일까지 1박2일간 경기도 고양시에 위

치한 안디옥교회 행선성전(담임목사 신화석)에서 개최됐다. "선교사, 현지목회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6대륙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과 선교학 교수, 선교단체 대표와 전문가, 목회자, 일반 성도

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급변 포럼에서는 정홍기(투마니아), 정운교(남아프리카공화국), 이은옥(인도), 장동진(유라시아 지역), 윤원로(카메룬), 임원혁(슬로바키아), 송형관(태국) 선교사 김종성 교수(도미니카), 주안대학원대학교)가 자신의 사역현장을 중심으로 발제를 했다. 그리고 논찬자로선 김광성(주안대학원대), 최형근(서울신대), 소윤정(이신대), 구성모(성결대), 조귀삼(한세대), 김승호(한국성서대), 장훈태(백성대) 교수와 강기안 선교사(아르헨티나), 김성환 소장(스페인교구), 한정국 글로벌코디(KAMSA), 조영중 사무총장(KWMA)과 문장선 목사(국제디스토피아선교센터 수석부대표)가 참여했다.



‘총회주일’ - ‘교단역량 결집’

5월 19일(주일) 전국서 헌신 다짐

제58차 총회 제1회 실행위원회 결의에 따라 지난 주일(5월 19일, 62차 총회 제1차 실행위에서 5월 셋째주일로 변경) 교단 산하 전 교회가 말씀을 통해, 성찬예배를 통해, 크고 작은 행사를 통해, 찬양을 통해 총회주일을 기념하고 특별히 소속된 교단 총회를 위한 교회의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을 전 성도들과 함께했다.

특히 총회장 임용제 목사는 “총회가 정한 매년 5월 셋째주일을 총회주일로 지정해 우리가 소속한 교단 총회를 위해 기도”를 요청하고 “신의성실을 무기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교역자들과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강조한 뒤 교단 총회를 위한 헌신을 당부했다.

전국교회에서 일제히 지켜진 총회주일은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한바탕 한뜻으로 교단 산하 전 지방회와 교회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다.

본 교단은 2007년 10월 한국과 세계에 교단의 대통합을 알린 데 이어 2008년 5월 통합교단을 출범시켰다. 많은 회원 교회들이 뜻을 같이해 주었고 안정적인 발전을 다져가고 있으며 고질적 교단의 병폐였던 밀실정치를 뿌리 뽑고 정적 총회로 발돋움하게 되었고 한국 교회에 교단통합의 새로운 모범을 보이게 되었으며 명실공히 한국 교회 중심교단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런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전국 교회가 하나 되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준 것이 커다란 발판이 되었음에 기인한다 할 것이다.

총회는 5월 셋째주일 총회주일이 총회원들의 뜻

을 하나로 모으는 총회발전의 계기가 되었음을 믿는다. 이제 전국교회는 각기 형편에 따라 총회주일 헌금에 적극 동참, 우리 교단의 총체적 역량을 결집하여 결집된 힘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역들을 이루어가게 될 것이다.

이 헌의 결집에 이미 많은 교회가 참여한 데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앞으로 모든 교회가 적극 동참하여 교단 발전과 하나님 나라 건설의 주체가 되어 주기를 교단 총회는 기대하고 있다.



최은규 원로목사 추대 및 담임교역자 취임예배

경기지방회

경기지방회(회장 전하세 목사)는 지난 4월 28일(주일) 오후 5시 순복음선한목자교회 최은규 목사의 원로목사 추대 및 정영옥 전도사의 담임교역자 취임 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총무 임형순 목사(순복음아멘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회장 은금용 목사(선한이웃교회)의 기도, 서기 안재봉 목사(순복음비전교회)의 성경봉독 그리고 지방회장 전하세 목사(열린축복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전 목사는 담전 1:12-15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목회하고 사명감당해야 함”을 증거했다.



이아진 추대사에서 선한목자교회의 최은규 목사는 원로목사로 추대되었고, 이 교회의 부교역자였던 정영옥 전도사가 담임교역자로 취임하였다.

총회장 임용제 목사의 권면과 축사 그리고 축도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제 46차 목회자 기도회 개최

광주지방회

광주지방회(회장 최정식 목사)는 지난 5월 14일(화) 오전 11시 순복음은혜의강물교회에서 제 46차 목회자기도회를 가졌다.



이날 기도회는 총무 조길수 목사의 인도로 재무 김정순 목사의 기도예에 이어 최정식 목사의 은혜로운 말씀에 힘을 얻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고, 교단의 발전과 총회 산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 후에 지방회와 지교회 그리고 특별히 헌자들을 위하여 기도했다.

이어서 증경회장 조원재 목사의 축도로 모든 기도회 순서를 마치고 순복음은혜의강물교회의 권사들이 준비한 한정식으로 맛있는 점심을 나누며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뿐만 아니라 최예자 장로가 무등산 자락에 있는 카피숍에서 차를 대접하여 모처럼 한가롭고 느긋한 5월의 정취를 느끼며 정담을 나누는 시간은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궁촌중앙교회 창립예배

경기남지방회

경기남지방회(회장 정석현 목사)는 지난 5월 14일 오후 12시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궁촌 40길 1/1에 위치한 궁촌중앙교회(담임 성백달 목사)에서 창립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서기 김효신 목사의 찬양인도에 이어 총무 서경호 목사의 사회로 부회장 박용열 목사의 기도, 재무 정세창 목사의 성경봉독, 시도의 은혜로운 특송에 이어 지방회장 정석현 목사의 말씀이 선포되었다.

정 목사는 행 16:31 말씀을 본문으로 “증언”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하면서 “성경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재림에 관하여 말씀을 증거할 때, 그리스도의 증언자로서의 말씀을 선포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회계 표한자 목사의 헌금기도와 지



방회장의 창립 및 취임선포, 취임패 증정 후 부회장 박용열 목사의 감사패 증정 후에 증경회장 김남수 목사, 강원동지방회장 박순용 목사의 축사, 증경지방회장 최병일 목사

와 김기인 목사의 권면, 성백달 목사(궁촌중앙교회)의 인사말과 광고가 있었다.

성목사는 “늦은 나이에 불러주신 하나님

께 감사하며 열심을 다해 복음전파에 힘쓰겠다”고 전하면서 기도를 부탁하였다.

찬송 후에 증경총회장 이창재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헌관식 후에 궁촌교회에서 준비한 선물과 풍성한 오찬으로 감사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나라와 민족과 지역발전을 위해 기도

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 조찬기도회

지난 5월 20일(월) 오전 7시 아산시 탕정면 소재 탕정나사렛교회(담임 황희성 목사)에서 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대표회장 진등을 목사·원내사진) 주최 2019년도 제6차 나라와 민족을 위한 조찬기도회를 가졌다.

1부 예배는 실무회장 박기환 목사(동천교회)의 사회로 이세영 장로(후원회)의 대표기도에 이어 강성철 목사(교분)가 막 9:14-25 말씀을 본문으로 “고쳐주옵소서”라는 제하의 설교를 통하여 “간절하게 괴로워하는 아이의 아버지가 간절하게 예수님에게 간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시국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간절하게 기도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 나라를 고쳐 주시고 세속화되어가는 교회를 고쳐주시길 것과 병든 사회를 고쳐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역설하였다. 이어 지도위원 황희성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이아진 2부 기도회에서는 삼일회장 박노섭 목사(심광교회)의 인도로 민족 복음화와 이기연을 위하여 지도위원 서석용 목사가,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하여 자원위원 박치영 목사가, 정치지도자들과 패스트트랙 반대를 위하여 공동회장 황기식 목사가, 성경통제정책과 인권조례안반대를 위하여 후원회 박해서 장로가, 국가

안보 및 경찰복음화를 위하여 경찰교무원목 박건구 목사가, 아산시복음화와 연합회발전을 위하여 부회장 이기연 목사가 제목기도하였고 참석자 전부의 마음을 담아 통성기도를 하였다.

3부에서는 삼일회장 조이철 목사(아산성결교회)의 인도로 이명수 국회의원의 국정보고, 비서관위원회 위원장 장현원 목사의 인권위원회 관련 업무를 보고받았다.

이어서 박성기 교수의 안보관련 특강에서 박 교수는 안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수년의 역사 속에 오늘이 있기까지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 바쳐서 피 흘려 순교하신 기독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

이어서 대표회장 진등을 목사의 환영사가 있었다. 진 목사는 “오늘의 정세가 어려운 위기에 처하여있음에도 현실적으로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오늘의 교회가 더 큰 위기이다. 이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월남시대와 같은 비참한 사태가 다가올 것”이라고 역설하고 “이때를 위하여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교회를 사수하고 지역복음화와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줄 것”을 당부하고 그간 회원들의 협력과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했다.

이어서 탕정나사렛교회에서 준비한 조찬을 함께하고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총회신학교 후원에 다같이 참여합시다!

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후원회

계좌번호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목양신문 지면보기

네이버 검색창에서 ‘목양신문’ 접속 후 ‘목양신문 보기’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목양신문 이메일 mok2677@naver.com

■ 생명의 말씀 ■



강 태 진 목사

· 안동시 기독교연합회 중경회장
· 대구경북지방회 중경회장
· 안동성교회 담임

요즈음 지지체마다 쓰레기 처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쓰레기가 얼마 전까지만 사랑받고 잘 사용했는데 기한이 지나니 어느새 버려야 할 쓰레기가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가치는 잠깐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후 4:18)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부요, 지위, 명예, 건강, 가치가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한때 그런 것을 자랑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그 가치와 비교하니 그것이 무엇이든 다 배설물과 같다고 말합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진리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누구도 한번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 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벧전 1:8,9)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영적인 세계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성으로는 쉽게 이해가 안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성령이 오셔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고전 2:14)

여러분 가운데 과거에는 부활이 안 믿어져도 지금은 분명히 믿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께서 부활의 믿음을 주십니다. 성령은 진리를 믿게 하지만 마귀는 그 반대로 인간을 거짓으로 속입니다. 사람들이 미신을 얼마나 잘 믿나요? 그래서 낫하고 점칩니다. 부적을 보물처럼 가슴에 품고 삽니다. 폐지마리를 처리 놓고 복달라고 믿니다.

마귀는 사람을 충동하여 아무 내용도 없는 점, 국, 부적, 고사를 자주 지내면서도 전혀 안 부끄러워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

(빌 3:7-12)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보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했던 로마의 역사가 예수 부활을 증명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아니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할 역사의 현상이 남아있습니다.

신앙의 박해를 피해 공동 묘지 아래에 굴을 파 만든 지하의 숙소인 카타콤, 기독교인을 죽이려고 굶주린 맹수를 풀어 놓아 죽였던 현장 팔로세움이 바닷이 관광객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했던 로마가 오히려 기독교를 역사의 원년으로 기록한 기독교 연호를 씁니다. 어느 나라나 황제가 바뀌면 황제의 연호를 씁니다. 세계 연호가 2019년은 예수님의 연호입니다

그래서 AD 2019년라고도 합니다. 그 뜻은 [Anno Domini] 라틴어로 ‘그리스도의 해’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박해해도 죽음을 이길 부활 신앙은 꺾을 수가 없었고 오히려 역사가 부활의 신앙에 꺾이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신앙의 뿌리는 부활입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공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툼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히 11:35-37)

그러므로 부활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절망에도 꺾이지 않고 들끓처럼 견디며 죽음의 공포 앞에 불인해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이 인생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 9:27)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 5:28,29)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부활이란 영광스러운 부활로 그리스도인의 부활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슴에 품었던 부활 신앙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심판이 없습니다.

부활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소망의 절정입니다. 만약에 부활을 빼고 기독교를 말한다면 내용이 빠진 빈 포장지에 불과합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믿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

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 3:10-12)

사도 바울은 한 때는 지독한 기독교 박해자였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했고 부활이라는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무리들을 다 체포하는 일에 앞장을 선 사람입니다.

어느 날 기독교인을 체포하러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납니다. 그의 삶의 가치가 뿌리 채 변하는 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자신도 그 사실을 믿음으로 그 부활에 동참할 수 있음을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것보다 더 고상한 것이 없으며 지금까지 그가 붙들었던 모든 가치는 배설물로 여길 정도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질 부활의 영광을 생의 결승점으로 정하고 질주한다고 합니다. 큰배가 작은 풍랑에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을 바라보는 인생은 어떤 시련이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임이라” (롬 5:3-4)

그리스도인의 절대 소망은 부활입니다.

동 정

한국전 참전 필리핀 용사 초청



미국 연방법인인 사단법인 코리아 네이비스(이사장 이정익 목사)는 한국과 필리핀 수교 70년을 맞아 6·25전쟁 참전용사를 초청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6월 21일부터 25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진행되며, 참전용사 자손들을 위한 장학사업도 연계한다.

바다주일 해양선교대회



한국선원선교회(대표 최원종 목사)와 소금과빛교회(담임 박석환 목사)는 5월 26일(주일) 오후 3시 소금과빛교회에서 2019 바다주일 기념 ‘바다주일 해양선교대회’를 개최한다. 이 대회는 선원들의 일상생활 영상물 상영을 시작으로 찬양사역자 김석균 목사의 설교, 바다주일 선포 및 합심기도한다.

교회교육 주제 전 회원 교육



국제독립교회연합회(설립자 박조준 목사, 총회장 정인찬 목사)가 지난 5월 20일(월) 서울 동작구 CTS 기독교TV 아트홀에서 ‘교회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전 회원 의무교육을 진행했다. 개회예배에서 정인찬 목사는 “교회으로 새 사람을 만들고 새 일을 해 나갈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한다”며 교회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우 황보라 “생명 나눔 전해요”



(재)사라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택 목사)는 최근 서울 강남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배우 황보라 씨와 장기기증 홍보 소식지 ‘선한이웃’ 화보 촬영을 진행했다고 지난 5월 20일(월) 밝혔다. 7년 전 분부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한 그녀는 이후 장기기증 홍보 영상 및 캠페인 등을 통해 생명나눔의 의미를 알리고 있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MBC의 정치 공작, 부끄러워해야 한다

MBC 방송이 탐사기획으로 방영하는 “스트레이트” 예고편에 보면 “예수님은 기호 2번? 선거법 비웃는 정치 교회” 편이 나온다. 이는 필시 야당의 당 대표를 부각시키면서,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MBC는 방송의 막강한 권력을 발휘하여, 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를 등장시키고, 그의 발언을 부각시켜 황교안 야당 대표와 연관시켜서, 어떤 목적을 이루려는 모습이 현저하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광훈 목사 측에서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방송이 이런 기획물을 내보내면서 취재의 기본도 지키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MBC 기사는 교회의 허락이나 협조 요청도 없이 지난 5월 12일 교회 예배시간에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전 목사의 발언을 불법으로 녹음하였고, 또 전 목사가 발언한 취지를 무시하고, 자신들 입맛에 맞는 쪽으로 보도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그리고 19일에는 교회에 무단으로 찾아와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까지 했다고 한다. 이날 11시, 주일 예배를 인도하려 강단에 올라가는 전 목사의 앞을 가자들이 무례하게 가로막고 불법적으로 인터뷰를 시도하였다. 결과적으로는 1,000여명의 예배를 드리려는 성도들을 기다리게 한 것이다. 이는 명백하게 예배를 방해한 행위이다.

또 전 목사와 황 대표 사이의 정치적 연관성을 억지로 지으려는 인터뷰를 시도하였다고 한다. 전 목사와 황 대표 사이에 어떤 사적인 대화가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전 목사는 분명히 자신은 정권을 하거나 직접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명을 하기 위하여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목사가 국가의 안위를 생각하여 정치를 통해 기독교적 정신과 가치관을 추구하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신들만의 정치적 주권 판단이 있고,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지탱

해오는데 그때그때마다 현명한 판단을 해왔었다.

아무리 MBC가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면서 기독교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 해도, 기독교인들의 정치적 판단과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 정권도 기독교의 절대적인 지지 속에 탄생한 정권이다. 그러나 국민들을 실망시키면, 전 정권들을 외면했던 전철을 피하지는 못할 것이다.

공영방송인 MBC가 아무리 야당 대표와 목회자를 연관시켜 기독교에 흠집을 내려고 하여도, 정권 하수인의 꾀수에는 남아가 지 않을 것이다.

정말 MBC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려면 야당 대표와 기독교를 이간시키려는 시도보다는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언론의 사명을 다하고, 국민 간 분열을 조장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 사회는 지금도 충분히 나쁜, 나쁜으로 갈라져, 분열되어 있다. 이런 때 언론/방송의 역할이 무엇이겠는가? 국민 통합 역할이 아니겠는가?

공영방송 MBC는 지역적이고, 편파적이며, 선정적인 방송을 위하여 방송 취재의 기본부터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또 이념과 편파에 치우친 정치 공작에서 벗어나, 국민들과 언론 수용자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공영방송의 본분을 찾아가기 바란다.

<http://agpgs.aogk.org>


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9학년도

사)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 이론과 오소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점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1. 지원 자격

학 과	과 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석사 (M.M/ Master of Ministry)	2년 (4학기)	- 본 교단의 소속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의 신학교 졸업자(예정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자

2. 제출서류

- ①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②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③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④ 추천서(소정양식) 1부
- ⑤ 반명함판 사진 2매
- ⑥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⑦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⑧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3. 전형일정 및 접수 방법

- ①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② 원서교부처 : 본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http://agpgs.aogk.org>)
- ③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④ 접수방법 : E-mail 혹은 우편이나 방문접수(luvjx7@daum.net)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50,000 원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교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② 본 교단 소속 목사 중 목회학 석사(M.M)학위를 취득코자하는 자에게는 50% 장학금 혜택을 부여한다.
- ③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오전 9:30분~ 오후 4:40분 까지 진행된다
- ④ 접수원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자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목양시론

한국 방송은 ‘가짜 뉴스’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언론들이 남을 향하여 ‘가짜 뉴스’라고 부르짖기 전에, 큰 권력을 가진 방송언론부터 스스로 가짜 뉴스를 지양(止揚)하는 태도부터 갖추기를 바란다. 권력에 편승하고 아부하기 위하여 방송 권력을 사용하게 되면, 곧 그 뒤에 쫓아오는 쓴맛을 볼 때는 어찌할 것인가?

언론들이 ‘기독교 때리기’에 열중하고 있다. 기독교가 잘못된 것은 당연히 매를 맞아야 한다. 그러나 ‘기독교 죽이기’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방송이 가진 언론 권력을 무제한 사용하고 있다면, 언론보다 훨씬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릴 것이다.

지난 4월 22일 MBC는 기획특집이라며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라는 프로그램 4부작 가운데 3회분을 방송하였다. 그런데 그 내용에는 한 여론조사 기관을 대상으로 ‘가짜 뉴스’를 추적하는 것으로 취재를 시작하였다. 그 여론조사 기관은 〈여론조사 공정〉(이하 공정)으로, 최근에 이 공정에서는 우리 사회의 민감한 이슈에 대한 것들을 자주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대개의 여론조사기관들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사회적 혹은, 국제적 이슈에 대한 것을 국민여론을 통하여 발표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이슈에 대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의 여론을 취합하여, 국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이다. 그러나 여론 조사가 때로는, 왜곡/조작될 수도 있다는 문제점들이 제기된 바 있다. 왜냐하면 조사 대상의 한정과 질문의 방식과 방향 등에 있어 편향/변조될 수 있으며, 질 낮은 조사에 의한 자료 수집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 시대적/정치적 지형이 달라지면서, 이에 편승하여 정작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내용들은 외면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비슷비슷한 내용들만 겹쳐지는 경우도 있다. 현재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 기관은 78개에 이른다.

그런 가운데 지난 해 초에 새로운 여론조사 기관이 공영이 생겼는데, 이들의 목표는 ‘여론조사 회사가 제공하는 데이터의 사회적 중요성과 그 책임을 기습 깊이 인식 한다’ 라면서 출발되었다. 지난해와 올해까지 100여개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보통 다른 여론조사 기관이 하지 않는 주제의 여론도 조사 발표하여, 사람들 깊숙이에 있는 생각들을 이끌어 내었다고 본다.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공영방송인 MBC가 보도하면서, FAKE(가짜) 뉴스로 몰아갔다. 사실 우리나라 방송들이 소위 ‘가짜 뉴스’에 대하여 보도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방송언론이 보도하는 것은 괜찮고, 여론조사 기관이 여론조사를 하여 국민들의 생각을 공표하는 것은 안 되는가?

어쨌면 이 여론조사 기관이 언론권력이 정권과 궤를 같이하면서, 꺼려하는 주제들을 가지고 여론

조사를 하여 발표했다고 이렇게 가짜뉴스로 몰아가는 것은 아닐까? MBC가 방송을 통해 공정에 대하여 문제를 삼는 내용을 보면, 국가인권정책, 동성애문제, 학생인권조례 등에 대하여 여론 조사한 것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에 수많은 여론조사 기관들이 있지만, 이처럼 실제적인 사회적 문제, 국민건강문제, 미래의 아이들에게 미칠 심각한 도덕/윤리적 주제들에 대하여 여론 조사하는 곳은 거의 찾아볼 수 어렵다. 그렇다면 오히려,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제들로 여론 조사하는 것이 더 정당하지 않은가?

그리고 공정을 취재한다고 하면서, 어느 차량에서 발견된 명함에 “에스더기도운동”이란 것을 보고, 기독교 선교단체인 이 단체와의 연관성을 찾으려 한다. 왜 에스더기도운동에서 활동한 사람은 여론조사 기관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가?

지난 해 한겨레가 이 단체에 대하여 소위 ‘가짜 뉴스 공장’이라고 했지만, 그에 대한 확실한 진위 여부는 법적 심판 중에 있다. 그렇다면 “기독교”와 연관되었다는 것 때문에 집착하는 것은 아닌가?

지금 언론들이 ‘기독교 때리기’에 열중하고 있다. 기독교가 잘못된 것은 당연히 매를 맞아야 한다. 그러나 ‘기독교 죽이기’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방송이 가진 언론 권력을 무제한 사용하고 있다면, 언론보다 훨씬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릴 것이다.

비단 기독교와 관련된 것이 아니더라도 방송의 권력은 국민들을 놀라게 한다. 최근 KBS 공영노조는 “홍위병이라고 조롱당하는 KBS, 부끄럽다”고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에 따르면, KBS 기자가 전에 대법관으로 있던 분을 찾아가 과거사 판결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며 사전에 취재 요청도 하지 않고 큰 결례를 범하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또 외국인 칼럼니스트가 다른 언론에 쓴 칼럼을 KBS 기자가 영문 원고를 내놓으라고 했다고 한다. 그리고 자사 방송에서도 그 내용을 가지고 다뤘다고 한다. 과거 독재 시대에 국민들이 흔히 당했던, ‘잠시 검문이 있었습니다’ 라던 모습이 떠오

른다.

MBC는 계속하여 소위 ‘가짜뉴스’ 방송을 내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타 언론사, 기독교언론사 등도 포함하여 무차별적으로 ‘가짜뉴스 선별사’로 활약할 모양이다.

우리나라 언론은 책임엔 소홀하면서 막강한 힘과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 권력을 잘 사용하면, 우리 사회에 큰 유익이 되지만, 또 다른 권력에 아부하고, 비위를 맞추기 위해 함부로 사용하면, 이는 곧 뼈아픈 부메랑이 되어 뜨거운 맛을 보게 될 것이다.

같은 칼집에 있을 때 위엄이 있고 품위가 있지, 뿔아서 휘두르기 시작하면 누군가는 그 칼에 베이게 된다. 또 그 칼을 정확하게 사용할 줄 알 때 비로소 칼의 용도가 이뤄지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면 스스로를 해치는 흉기가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의 여론 조사는 응답률이 매우 낮다고 한다. 즉 지난 해 4월부터 5월 중순 사이에 선거 여론조사 243개 가운데 응답률 5% 미만인 36%나 되었다고 한다. 응답률 5%란, 연결된 전화 20,000명 중 1,000명은 끊어지고, 나머지 1,000명이 응답한 결과를 말하는데, 이런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가?

전문가들은 응답률 10% 이하의 여론조사 결과는 언론에서 보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고 심지어는 50% 이하의 여론조사는 공정성/정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의 여론 조사 가운데 응답률 20% 이상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

이처럼 여론조사도 그렇고, 책임감 있어야 할 언론들도 이런 문제점은 지적하지 않고, 지꾸 ‘가짜 뉴스 운운’하면서, 정권과 눈 맞추기에 힘쓰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모습이다.

언론들이 남을 향하여 ‘가짜 뉴스’라고 부르짖기 전에, 큰 권력을 가진 방송언론부터 스스로 가짜 뉴스를 지양(止揚)하는 태도부터 갖추기를 바란다. 권력에 편승하고 아부하기 위하여 방송 권력을 사용하게 되면, 곧 그 뒤에 쫓아오는 쓴맛을 볼 때는 어찌할 것인가?

한국교회언론회

캄보디아 복음화의 엘리트 양성에 주력

WEM선교협의회 복음장학관 개관

재단법인 WEM선교협의회(이사장 박요한 교수)와 WEM국제NGO대표회장 강병이 목사는 전주바울교회 원로 원팔연 목사(동회 지도고분) 기념 복음장학관 개관 예배를 지난 5월 13일 현지에서 드리고, 캄보디아 복음화의 사명을 다짐했다.

개관예배에서 박요한 목사(예장 합동해외총회 총회장)는 설교를 통해 “세계적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다. 캄보디아 신학교와 신학생을 위해 문을 연 장학관이 동남아시아 선교의 전초기지로서의 사명에 충실하기를 소망한다”면서, “오늘 개관한 장학관은 앞으로 캄보디아 복음화의 주역이 될 신학생 및 목회자들의 보금자리로서의 역할은 물론, 동남아시아 선교의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강을 맡은 공보길 교수(명지대학교)가 현장 목회를 위해 목회자들의 복음적 상담의 중요성을 강조

했다.

원팔연 목사는 공보길 교수가 대독한 복음장학관 개관 인사에서 “미래 캄보디아 선교의 지도자가 될 신학생들은 바리새 아카데미 세미나를 통해 엘리트화 된 복음의 전령이 되어야 한다. 캄보디아와 한국의 문화적 콘텐츠를 개발, 공동번영과 이익으로 범세계적 복음 네트워크를 형성해 효율적인 선교전략을 짜야 한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문화 창출로 복음과 성경의 역사성을 지키는 지킴이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장학관은 지상 4층 규모의 건물로 바이블아카데미 세미나실(1층), 사무실 및 소세미나실(2층), 대학생 무료기숙사(3층), 전교실 및 체력 단련실(4층) 등으로 운영된다. 또한 동선교협의회는 한글학교를 비롯하여 영어학교, 청소년 센터, 한국무용학교, 음악학교, 의료봉사 교실, 정규 신학교육 등의 중장기계획을 세웠다.



히즈쇼 여름성경학교 교사강습회

CTS제주방송, 25일 오후 2시, 제주성안교회서 무료로

CTS제주방송(지사장 오동환)은 25일 오후2시 제주 시 아라동 제주성안교회(담임목사 류정길) 이기풍기념홀에서 주일학교 교역자와 교사를 대상으로 CTS제주방

송 아카데미 ‘히즈쇼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개최한다.

이번 강습회에서는 ‘재미있는 주일학교 히즈쇼의 노하우를 교사들에게 전하며, 찬양과 율동, 주제강의, 특별공연, 공과교수법 등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여름성경학교 프로그램과 교수법을 교육한다.

CTS 감경철 회장은 “세상과 소통하기를 기대하는 어린이들에게 재미있는 콘텐츠로 다가갈 때 아이들은 집중, 반복하여 학습하고 변화하게 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CTS제주방송 교사 강습회를 통해 교사와 교역자들이 이번 귀한 어린이 사역의 사명감을 되새기고 영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는 부흥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교사강습회는 다음세대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교제는 당일 무료로 제공된다. 사전 접수는 홈페이지(jeju.cts.tv)를 통해 가능하다.

(문의 064-724-9191)

홈페이지: www.agtc.or.kr



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9학년도
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신학교는 신실한 사명 자들을 성경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거룩한 성품과 오순절 신학을 겸비하여 이 시대가 요청하는 사명자를 배출함으로 한국과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영적 지도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교육목표

- ① 성경적 오순절 신학의 연구와 정립
- ② 거룩한 성품과 성령의 능력이 겸비된 일꾼 양성
- ③ 건강한 교회를 세울 참신한 지도자 양성

● 교훈

- 자질을 갖춘 소명자
- 진리충만 은혜충만한 소명자
- 복음전파에 목숨을 건 소명자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4년8학기 (140학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졸 이상의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은 자
신학과 (편입생)		• 4년제 대학졸업자 : 3학년에 편입 • 전문대 졸업자 : 2학년에 편입 •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할 경우 해당 학년 편입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② 담임목사 추천서
- ③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④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⑤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자)
- ⑥ 건강진단서(HIV포함)
- ⑦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⑧ 가족관계증명서
- ⑨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일정 및 접수방법

- ①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②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③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총회신학교 교학처)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30,000원(계좌로 입금)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본 교단 전도사 임명자격을 부여한다.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을 부여한다.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신학교 교학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ASSEMBLIES OF GOD



신임 총회장 신재영 목사에게 의사봉전달



신·구 총회장의 뜨거운 포옹



‘거룩한 능력을 덧입자’ (요 17:17)

‘성경대로 믿고 가르치며 전파하는 거룩한 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68차 정기총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68차 정기총회가 지난 5월 20일(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은혜와진리교회에서 ‘거룩한 능력을 덧입자’ (요 17:17)라는 주제로 열려 국가 정세의 위기 속에 나라와 민족의 튼튼한 안보와 평화정착을 위해, 한국교회의 바른 성장

을 위해, 한국교회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온 종교다원주의 사상과 혼합주의를 비롯 이단 사이비를 배격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기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본지는 68차 정기총회 광경을 화보로 엮는다 ...

〈편집자 주〉



임원배석



기록서기



목사안수 인준



은혜와진리교회 장로성가단의 찬양



신임원진



신·구 임원진



전국지방회장
실행위원 인준

순서를 맡은 이들 - 총회 진행순서



설교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인사말
신임총회장 신재영 목사



인사말
직전총회장 임용재 목사



축도
증경총회장 김상용 목사



폐회기도
증경총회장 진동용 목사



대표기도
증경총회장 임종달 목사



개회기도
증경총회장 이용주 목사



고시위원회 보고
고시위원장 김인규 목사



축사
황우중 CTS 경영본부장



총회임원 선출
신관위원장 김인찬 목사



성경봉독
신교위원장 심용재 목사



특별기도1
증경총회장 김용덕 목사



특별기도2
전직 부총회장 정부용 목사



감사 보고
감사위원장 김병목 목사



예산 보고
예산위원장 김윤용 목사



광고
서기 이경진 목사



한금기도
회계 조병희 목사

근속패 · 감사패



30년 근속패 - 윤필중 목사



30년 근속패 - 박정자 목사



30년 근속패 - 이규호 목사



30년 근속패 - 주덕영 목사



30년 근속패 - 왕상엽 목사



30년 근속패 - 문경부 목사



30년 근속패 - 권용덕 목사



감사패 - 사모회장 윤금자 사모



접수대에서

발언대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자”
(눅 6:38)

안디옥교회 사역자 모집 공고

21세기의 사도행전적인 교회인

안디옥교회에서 함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열정적이고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할 사역자를 구합니다.

1. 모집인원 : 남, 여 각 1명
2. 모집파트 : (기본적인 컴퓨터 사용 능숙한 자)
* 남자 - 중고등부 / 청년부 담당 및 교회 전반적인 업무
* 여자 - 초등부 담당 및 교회 사무 업무
3. 사례 : 협의 후 결정
4. 복리후생
(1) 숙소 제공 (2) 기타사항은 협의 후 결정
5. 경력유무 및 학력 : 기독교 정통교단 정규 신학대학교 졸업자
6. 우대조건
(1) 1종 차량운전 가능한 분 (2) 영어에 능통한 분
(3) 영상 편집 및 제작 가능한 분

7. 제출서류
(1) 이력서
(2) 자기소개서 및 신앙 고백서
(양식은 따로 없지만 소명에 대한 확신과 이전 사역에 대한 내용은 필히 기술할 것)
(3) 졸업증명서
8. 전형절차 : 1차 서류면접(이메일 가능) / 2차 면접
baeyh83@gmail.com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안디옥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915-7번지 (세명고 앞)
TEL : (054)281-4611-4 FAX : (054)281-8352

‘천로역정’ 시험의 길 3종 영상 공개!

놀라운 천로역정의 세계!...영화 ‘천로역정’ 6월 13일 개봉

〈천로역정: 천국을 찾아서〉가 율법 언덕, 하염시장, 절망의 성까지 다양한 천로역정의 세계를 담은 시험의 길 3종 영상을 공개했다. 〈천로역정: 천국을 찾아서〉는 죄악으로 어두운 멸망도시에서 살아가던 ‘크리스천’이 우연히 접한 한권의 책을 통해 알게 된 천국도시를 향해 나아가는 험난한 여행을 그린 바이블 어드벤처.

이번에 공개된 시험의 길 3종 영상은 ‘크리스천’이 멸망도시를 떠나 천국도시를 향해 가는 과정 중 당도하게 되는 율법 언덕, 하염시장, 절망의 성을 담은 시선을 사로잡는다. 먼저 첫 번째 영상은 ‘율법 언덕’에 대한 내용으로, ‘율법 언덕’은 ‘세상 잡념’의 계락에 넘어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된 ‘크리스천’이 도착하는 곳이다. 등 뒤에 있는 짐을 벗겨줄 수 있다는 ‘율법’의 말을 믿은 ‘크리스천’은 ‘율법’이 있는 꼭대기를 향해 올라가지만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해 긴장감을 자아낸다. 또한 ‘전도자’가 나타나 ‘율법’은 절대 등 뒤의 짐을 벗겨줄 수 없다는 말을 전하며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이탈할 것에 대해 책망하자 ‘크리스천’은 반성을 통해 회개하고 다시 옳은 길로 돌아와 여정을 떠나게 된다.

두 번째 영상은 ‘하염시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크리스천’은 여행 도중 우연히 만난 ‘믿음’과



함께 달콤한 유혹이 가득 찬 하염시장에 도착하지만, ‘전도자’의 조언에 따라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이들을 기만하지 않으려 하고 이들에게 갇은 고난과 수모를 안겨준다. 과연 ‘크리스천’과 ‘믿음’이 무사히 하염시장을 빠져나와 여행을 계속할 수 있을지 궁금증을 증폭시킨다.

세 번째 영상은 ‘절망의 성’으로 ‘크리스천’과 ‘소망’이 거인에게 잡혀 큰 새장에 갇힌 채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게 되는 모습이 담겨있다. 하지만 이내 성 이름의 의미를 깨달은 두 사람은 새장에서 벗어날 열쇠를 손에 넣어 무사히 탈출에 성공한다. 또한 스스로

나신의 늪에 빠져 벗어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 줄 영화 〈천로역정: 천국을 찾아서〉의 메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영화에 대한 기대를 고조시킨다. 앞으로 남겨진 고난과 역경 속에서 ‘크리스천’이 여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원작의 텍스트로는 느낄 수 없었던 놀라운 천로역정의 세계를 CGI 애니메이션으로 스크린에 구현해 거대한 스케일과 화려한 볼거리를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천로역정: 천국을 찾아서〉는 오는 6월 13일 개봉한다.

수입배급 CBS

예총연 제14회 춘계수련회

대표회장 강 목사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것’ 강조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연합회(이사장 유영섭 대표회장 강영희, 이하 예총연) 제14회 춘계수련회가 지난 5월 9~10일 강원도 속초시 신세계영랑호리조트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자’ (왕하 5:15)라는 주제 아래 개최됐다.

200여 명의 회원 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박 2일 동안 예배와 부흥회, 특강과 친교의 시간으로 한결한 수련회는 은혜와 성령충만 친교와 나눔이 있는 귀한 은혜의 잔치가 되었다.

세미나의 시작을 알린 개회예배는 장창래 목사(삼일교회)의 인도로 우정은 목사(삼일교회)의 기도, 홍종철 목사(삼일교회)의 성경봉독, 대표회장 강영희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강 목사는 왕하 5:15-18 말씀을 본문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자’라는 제의의 설교를 통해 “나아만 장군이 깨닫기 전에는 이스라엘 왕이 병을 고치는 줄 알고 반지수를 잘못 찾았고, 자신을 좀 다루듯 하는 엘리사의 대접에 화를 냈으며, 몸을 씻으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

으려 했다”며 “깨달은 후의 나아만 장군은 순종함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깨끗한 삶을 얻었다. 깨닫지 못할 때의 생각과 깨달은 후의 생각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 강조 했다.

최현자 목사(회계)의 한금기도에 이어 특별기도 순서에서는 김선영 목사(삼일총무)와 문인주 목사(서기), 제갈덕규 목사(부서기), 함해웅 목사(회의록서기)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예총연과 26개 총회 3개 단체를 위해, 세계선교를 위해 기도를 인도했으며, 반정웅 목사(사무총장)의 광고와 유영섭 목사(이사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특강 순서로는 합동보수연합총회 총회장 심만섭 목사의 ‘현대목회와 교회행정’으로 교회행정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짚으면서 교회설립과 교회문화, 교직원, 제직, 차리회, 권징 등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방법 등을 강론했다. 특히 종교인 과세와 교회행정에 대해서도 별도로 파트를 마련해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고 당당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했다.



한장충, 친선체육대회

제11회 장로교의 날 첫 행사

(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이하 한 장총) 주최 회원교단 친선체육대회가 지난 5월 14일(화) 남영불링센터에서 열렸다. 회원교단 총회장, 총무 및 사무총장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친선행사는 ‘제11회 장로교의 날’ 기념행사도 장로교연합을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인사말에서 송태섭 목사(한장총 대표회장)는 “가장 바쁘신 총회장님들과 회원교단 총무, 사무총장님들이 이렇게 시간을 내신 것은 한국장로교 연합의 의지

를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며, “이 행사는 제11회 장로교의 날의 첫 행사로 앞으로 이어지는 기념예배, 학술포럼, 장로교 역사탐방, 몽골 개교회 건축현장 등의 사업에도 큰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하였다.

이날 참가자들은 각 총회의 바쁘고 힘든 격무 중에 모처럼 어우러져서 유쾌한 시간을 가졌다는 반응이다. 불링대회에서 조강진 목사(예정대신 총무)가 우승하여 한장총 대표회장상을 차지했다.



정직과 진실이 반드시 이긴다

성원 박영률 목사의 칼럼집

봄은 언제나 겨울을 이긴다



▲박영률 저(사인, 교육학박사, 철학박사)
하나로 선 사상과문학사 간
p235 / 값 15,000원

이 책은 정직과 진실을 추구하는 기독교세계관을 가지고 현역에 있을 때나 떠난 후에도 침묵하지 않고 할말을 하면서 “해야 할 말을 안 하는 것이 죄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것도 죄”라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온 성원 박영률 목사가 7년간 복음신문에 기고한 칼럼을 묶어서 발간한 책이다.

박영률 목사는 목회자로, 교육자로, 문학인으로, NGO운동가로 43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해왔다.

저자 박영률 목사는 이번 칼럼집에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칼럼마다 날짜를 밝혔으며,
보는 사람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저자는 침묵하지 않고 있었음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이책의 수익금 모두는 특수지역의 교육선교비용으로 사용됩니다.



▲박영률 저(사인, 교육학박사, 철학박사)
하나로 선 사상과문학사 간
p235 / 값 15,000원

교회와 교단의 부흥 위해 기도로 헌신



신무회 회장
김귀순 사모

전국사모연합회 제9차 정기총회 개최

전국사모연합회(회장 윤금자 사모)는 지난 5월 20일(월) 오후 2시 은혜와진리교회 아가페성전에서 제9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한 회기 동안 사모회의 발전과 교회와 교단의 부흥을 위해 기도로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교단 정기총회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를 받은

회원들은 아가페 성전에 모여 회의에 앞서 서기 이정희 사모의 찬양인도, 고분 최혜선 사모의 특별찬양에 이어 회장 윤금자 사모의 개회선언, 수석부회장 이정희 사모의 개회기도 순으로 이어졌다.

보고사항으로는 총무 신명희 사모의 총무보고, 재무 김숙향 사모의 수입보고, 회계 김세희 사모의 지출보고, 감사 차추련 사모의 감사보고

후 회장 윤금자 사모 주재 하에 임원진을 개설했다.

이번에 선임된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고분 최혜선 김양숙, 증경회장 김양란 차경애 신동진, 차추련 직전회장 윤금자, 회장 김귀순, 수석부회장 강춘옥 1부회장 신명희 2부회장 이선자, 총무 김세희, 부총무 이정희, 서기 김숙자, 부서기 조순자, 재무 김숙향, 회계 유순희, 부회계 설경희, 감사 윤금자



직전 사모회장
윤금자 사모



전국사모연합회 신(사진 위) · 구 임원진



‘교회학교 교사 강습회’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열려

여름성경학교 행사 준비, 신령한 지식을 쌓고 성령 충만한 헌신 다짐

교회학교 교사강습회가 지난 5월 11일(토) 안성성전에서 교육자료국 주관으로 올해 교회학교의 중점 교육목표인 ‘진리(로 14:6)’를 주제로 성황리에 열렸다.

교사들은 오전 10시 대성전에 모여 기록한 교사의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기뻐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학생들을 잘 이끌 수 있는 믿음과 이해와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하였다. 이어서 여러 강의와 실습을 통해 교사로서의 자질향상을 꾀하는 한편 여름 어린이성경학교와 청소년 수련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성충현 목사의 사회로 김기춘 장로의 기도에서 이어진 개회예배 설교에서 권준수 목사의 주제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영적으로 훈육한 이 시대에 교회학교의 역할과 교사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을 강조하며 교사들의 사명감을 북돋워 주었다.

예배를 드린 후 오전에 아동부서의 교사들은 대성전에서 대림번영교회 조은님 전도사의 지도와 에이레네 어린이선교단의 시범을 통해 ‘진리’를 주제로 창작한 새로운 어린이 찬송가와 율동을 배우고, 중고등부 교사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김원기 목사의 ‘교사의 자질(사망)’을 주제로 한 특강을 들었다.

성전과 부서별로 교사들이 정성껏 준비해 온 음식으로 즐겁게 점심식사를 한 뒤 오후에 아동

부서는 부서별로 여름성경학교에서 실시할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주요 포스트별 시연과 강습이, 중고등부는 ‘신앙생활’ ‘페미니즘 세계관-성경으로 바라보기’ ‘주제별 발표 및 토의’의 선택특강이 교사와 교역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진행되었다.

마지막 순서로 교사들은 대성전에 모여 김현진 목사의 인도로 성령충만기도회를 갖고 성령충만한 헌신과 교회학교와 맡은 반의 부흥을 위해 간절히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도하였다.

이날 강습회에는 송전교회, 아멘교회, 초신교회 등 본교단 여러 교회 교사들도 참석하여 함께 배우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눴다.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천년초의 효능

70인 천년초식품

백년초는 멕시코 산으로 독성이 있습니다.
천년초는 로종 한국산으로 독성이 없습니다.
천년초와 백년초는 완전히 다른 종입니다.

*천년초는 인체에 무해하며 독성을 지니지 않음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발표)

1)폐놀성물질

- 1 손상된 신세포조직(각종 염증을 다스림)
-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취실함)
- (*고려대학교 손용석 교수님 암쪽으로 세계특허냄)

2)플라보노이드

-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 3)타식플라민 :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 전북대연구논문

4)호흡기,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 서울대연구논문

5)사포닌 : 면역력 증가

6)칼슘 : 홍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7)식이섬유 :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연구논문)

8)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 (전북대연구논문)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 연구를 통해 발표됨.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입증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종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남.



목포시내산교회

본사 대표 방철성 · 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 · 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초대시

이제인 // 은혜와진리교회 장로

하나님이 계시오니

사람들이 나를 속일 때마다
나 자신이 나를 알지 못할 때마다
삶이 방향을 잃고 두려워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더욱 빛나고
그래도 오직 하나 희망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음이어라

마주보고 앉아, 약속하고 또 다짐했건만
툼니비퀴 맞물리듯 함께 돌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오니
내일 아침 해는 분명히 다시 뜨리라

비워주고, 내어주고, 빼앗기면 살 수 없는가?
한 번만 더 생각하고 말하지 말거라
잠깐만 눈을 감고, 보지 말거라
눈에 고인 눈물이 땅에 떨어져도 흠쳐 닦지 말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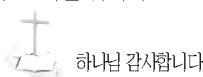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사랑에 얽혀보라
그래도 어여뵈면 내일의 태양이 너를 위해 뜬다

나그네여 어디가 귀택인가?
오늘 유할 곳에 부비가 많이 드는가?
하나님 나라의 부유로도 부족한가?
네가 맡겨둔 믿음이 없는가?
그래도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기도하거라.



바람이 그대를 흔들어도, 시원하지?
돌부리가 발가락을 상하게 해도, 네 잘못이지?
내가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지만, 솔직히 아니지!
바로 그거 아니겠니,
남이 손으로 한 것을 나는 눈으로,
입으로 하고, 그러나 내 손도 내 말을 잘 듣지 않네 그려.

부족한 것이 전부요, 연약한 것이 전부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 계시오니, 정말 행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양
포커스

정치에 종교 차별을 덧씌우는 언론들

최근 자유한국당의 황교안(이하 황 대표) 대표가 전국 민생 투어를 하는 중, 지난 12일 석가탄신일(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경북의 모 사찰을 방문했는데, 그때 불교식으로 ‘합장’을 하지 않았다 하여, 언론들이 연일 보도를 하고 있다.

가장 먼저 보도한 중앙일보를 비롯하여 16일 오전까지 대략 20여 개의 방송, 신문, 인터넷 언론, 불교 언론 등이 이를 보도하였다. 대부분 제목을 보면, 황 대표가 합장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불교 쪽 언론에서 보도하고, 불교계의 주장을 대변하는 듯하다.

황 대표가 정치인이고 또 민생 투어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우리는 그에 대하여 알기 원할 수 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언론들이 그의 행보 가운데 불교계에 가서 합장을 하지 않은 것에만 주목하려는 것은, 언론으로서 국민 통합을 해치며, 종교 간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되고 만다.

이미 황 대표에 대한 종교관은 어느 언론이나 다 알고 있다. 그가 독실한 기독교인인 것을 알면서, 불교계에 가서 ‘합장’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강조하는 것은 언론 자질의 문제이다. 이는 문제를 만드려는 의도가 분명하며, 기독교에 대한 도전이자, 종교 간에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다.

정치생명은 유원하고 제한적이다. 우리가 보아

온 대로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정치적인 이해득실에 따라서 자신의 종교 신념까지도 바꾼다거나 버리는 예를 보아왔다. 그런데 그런 처신의 정치인들은 믿을 수가 없는 이들이 되고 말았다.

타 종교를 존중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도, 자신의 신앙까지 버려두고 타 종교에 형식만 갖추려는 것보다는, 자신의 신앙을 솔직하게 선언하고 그에 따른 신앙이나 신념의 정도(正道)로 행하는 이들이 오히려 믿을 수 있는 인사가 아니겠는가?

물론 자신의 신앙과 다르다고 해서 다른 종교를 무시하는 태도라면 그 일을 책임하여야 마땅하다. 그런데 자신의 신앙의 자세를 옮겨 가져다주고 해서 비난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 된다. 현재 언론들의 태도는 종교 편향적이며, 일종의 기독교에 대한 강한 압력이다.

다시 말하거나, 만약에 황 대표가 자신이 믿는 종교 외에 타종교를 폄하하거나 모독하거나 부정했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을, 편향한 언론의 잣대로 여단하여 난도질하는 것은, 언론 스스로 무지함과 국민 간 갈등을 부추기는 것으로 아주 잘못된 보도 행태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중앙일보가 지난 14일 오전 6시에 가장 먼저 보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중앙일

보는 이날의 기사 제목을 “부처님 오신 날 사찰 가서 합장도 반배도 안한 황교안”이라고 불렀다. 이는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영불에는 관심이 없고 잣값에만 관심이 있다’는 언론 보도 태도가 아닌가?

그래서 이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14일 오전 6시부터 15일 17시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과연 언론 수용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전체 댓글 296개 가운데 이 언론의 논조에 찬성하는 글은 109개 정도가 되고, 반대로 황 대표의 행보를 지지하는 글은 115개 정도가 되었다(아래지는 댓글에 댓글을 달고,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임)

그러니까 국민들은 오히려 황 대표의 행동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황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대통령 되었다고 자신의 양심을 저버리는 사람에 비해 정제성을 지키려는 황교안 대표의 중심이 느껴지네요’ ‘참석해서 행배를 부린 것도 아니고, 두 손 공손히 모으고 축하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대표님이 진짜 신앙인이다. 진짜 애국자다. 불교를 대우하는 진실한 사람이다. 가짜로 합장하는 것보다 천배 만배 좋다’ ‘저기 간 것 자체가 (불교를) 이해하려는 노력 아닐까? 다른 종교를 이해한다고 다른 신을 경배하고 찬양까지 하길 바라는 자체가 무례 아닐까?’ 라고 평가한다.

사설

다시 온 국민의 희망이 되자

제68차 교단 성총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총대들의 격려와 성원 속에 은혜롭게 치러졌다.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 신임원진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새로운 한 회기를 이끌어가게 될 새로 선출된 임원들은 그 어느 때 보다 막중한 사명을 어깨에 짊어지게 되었다.

국제정세가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위기 상황으로 치달고 있고 잔혹하기 짝이 없는 북한의 기독교인 학살 만행과 현 정부의 다양한 진북 행태로 한국교회의 존립조차 위태로워진 현실을 보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이 난국을 해결해 주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한국사회에서 개신교회는 20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다수 사회성원으로부터 사회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인정받아 왔다. 특히 일제 치하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민족의 독립을 위해 국민 계몽과 교육·선교·구제의 빛을 발했던 일은 지금도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남아 있다. 그 후에도 사랑의 종교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한국교회의 신뢰도는 날개도 없는 듯 추락 일로를 나타내고 있다.

2015년 종교인식 조사에서 무종교인들에 대한 종교별 호감도는 천주교 36.7%, 불교 36.1%, 개신교 14.4%로서 계속 하향 추세를 나타냈다.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는 16.7%로서 전년대비 1.5% 하락했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8.4%로 전년대비 14.9%나 증가했다.

낮은 신뢰도의 이유로는 ‘언론에서 부정적인 내용이 많이 접해서’ -18.6%, ‘언행일치의 모습을 볼 수 없어서’ -15.6%, ‘교인들의 비 윤리적 행동 때문에’ -14.9% 등으로 나타났다. 교회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바뀌어야 할 점으로 응답자의 28.3%가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일부 좌파 반 그리스도세력이 우리 사회에 독버섯처럼 기생함에 따라 악의적으로 개신교를 헐뜯어 온 일도 교회의 명예 실추에 일익을 감당했을 것임에는 분명하지만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화는 현재 세계적으로 35만 교회와 6천5백만 성도를 시현(示現)하고 있는 주요 개신교파로서 포스트모더니즘이 범람하고 복음의 순수성이 나날이 흔들리고 있는 세상풍조 속에서도 사도시대의 순수 신앙을 지키고자 힘써오고 있다. 하나님의 성화야말로 전 세계적으로나 한국교회에 참된 신앙 부흥과 교회 위상 회복의 중심이 되어야 할 책무를 통감해야 한다.

이제 한국교회가 다시 온 국민의 희망이 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우리 교단이 앞장서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랑과 공의를 실현해 나감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데, 새로운 임원들이 큰 역할을 감당해 주실 것을 당부해 마지않으며 아울러 회원들의 적극적인 기도와 아낌 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6) 12:1,2

서울시는 동성애 퀴어 축제를 불허해야

지난 8일 서울의 20여 명의 공무원들은 성명을 통해 ‘4년간 서울광장에서 시행된 퀴어축제가 공간의 사용목적과 규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앞으로 퀴어행사 및 유사행사의 사용신고 시, 불수리할 것을 열린광장 운영시민위원회 및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서울시 일부 공무원들의 양식 있고 용감한 주장에 대하여 적극 지지하며, 서울시와 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즉각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바로 이것이 시민들이 원하는 공직자의 모습이다. 공직자는 ‘철갑룡’이 되어서도 안 되고, ‘무시안일’에 빠져서도 안 되고, ‘복지부동’이 되어서도 안 된다. 또 어떤 경도(傾倒)된 이념이나 권력에 편승해서도 안 된다. 오직 시민과 국민의 공

복(公僕)이 되어야 한다.

만약 올해에도 서울시와 운영시민위원회가 시민들의 정당한 주장을 외면한 채, 동성애 축제를 서울광장에서 열도록 허락한다면, 이는 권력의 남용이 되며,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운영의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법과 기준이 무너지고, 원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이는 서울 시민들의 광장이 아니라, ‘불법 광장’으로 둔갑할 것이다. 다시 한번 촉구하거나 서울시시는 2019년 동성애 퀴어축제를 서울광장에서 불허해야 한다. 서울광장은 윤리의 분출구가 아니라, 일천만 서울시민들의 건전한 문화 활동의 건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 만약 이를 무시하는 공직자가 있다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시민의 이름으로 이뤄져야 한다.

목양
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정책위원장 조몽목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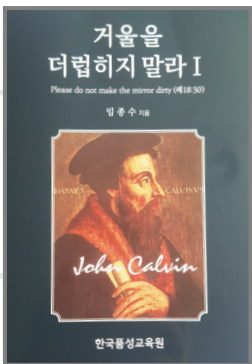
●발행 겸 편집인: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배성환

●연락처: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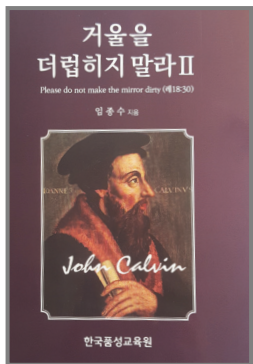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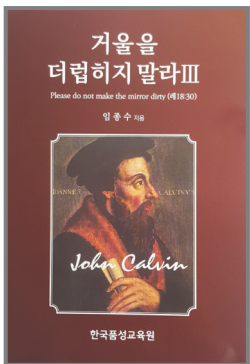
믿음은 구원으로 인도하고 품성은 행복과 성공으로 인도한다



제1권 품성과 비슷한 덕목인 성격, 덕성, 인격, 개성을 바울은 어떻게 개발하였는가? 이조 500년 유교와 고려 500년 불교가 만들어낸 윤리 도덕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윤리부분 7가지와 자기 계발의 부분에 필요한 10가지를 논하였다.



제2권 대인관계 부문 10가지와 신사적인 성도가 되기 위한 품성 4가지와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품성과 더 좋은 것과 가장 좋은 품성이 무엇인가를 논하였다.



제3권 부정적인 품성 6가지와 영적전쟁의 품성 10가지와 신자가 물리쳐야 할 세력들 즉 점과 굿, 자살, 인종차별과 이단척결을 논하였고, 올바른 생활을 위한 실천분야 5가지를 논하였다. 만약 이 책을 매일 한 과씩 훈련한다면 훌륭한 신자가 될 것이다. 곧 새 언약과 품성과 자유의 대 현장 두 권이 출판 될 것이다.

품성은 성공과 행복의 열쇠이다. 품성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이다.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는 영적인 면만 강조하고 육체를 가진 인간의 삶에 대해서는 등한시하여 삶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야 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남의 발에 고추를 따가는 생활이 그 대표적인 이야기이다. 그래서 저자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영적훈련을 해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품성에 관한 책자를 7권 출판하였다. 최근에 출판된 '거울을 더럽히지 말라' 1,2,3권을 소개한다.

강의 안내

각 교회에서 시행되는 각종 중직자 세미나
각 지역에 거주하는 목회자들의 소 그룹

책 구입처

cslim4305@gmail.com 임종수 원장
재무담당 이미란 이사 010-8618-9982
계좌번호 농협 351-0771-1742-13
한국 품성교육원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9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 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 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③ 전형료 : 20,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경남지방회

창원순복음교회 입당예배

일시 2019년 6월 6일(목) 오전 11시

장소 창원순복음교회 2층본당(담임 권우석 목사)
경남 창원시 의창구 두대로 81번길 27 (대원동 99-3)
연락처 : 055-237-5907, 010-5737-5907

초·대·의·글

창원순복음교회는

1991년 3월 1일 창립하여 2003년 종교용지 372평을 매입 150평을 건축하였으며, 16년이 지난 올해 150평을 증축하여 완공된 건물에서 입당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성전건축기금 마련을 위해 이현순 사모의 “주와같이 길 가는 것” 신앙수필집을 구입 해주셔서 예배당 건축에 큰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 교회는 땅끝까지 내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에 열심을 다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오셔서 함께 기쁨을 나누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창원순복음교회 성도 일동

설 교



김 상 용 목사
교단 증경총회장
청주중앙순복음교회

축 도



박 영 찬 목사
교단 증경총회장

담 임



권 우 석 목사
창원순복음교회
교단 고시위원

목양신문을 통해 입당예배 초청장으로 대신합니다.

전 세대가 함께 떠나는 믿음의 여정

| 300여년 동안 전해진 위대한 유산 |

천로역정

천국을 찾아서

SYNOPSIS

천국으로 가는 여행자,
당신의 이름은 크리스천!

희망도, 기쁨도 없는 '멸망도시'에서 살아가던 '크리스천', 어느 날 발견한 한 권의 책에서 '천국도시'의 존재를 알게 된다.

왠지 모르게 책에서 눈을 떼 수 없던 그는 결국, 무거운 짐을 지고 천국을 찾아 모두가 만류하는 무모한 모험을 시작하게 되는데...

"뛰어, 크리스천! 천국에 닿을 때까지!"

단체인람 신청 | ☎ 02.2650.7942(친구사이)

facebook.com/cbscinema

수입/배급 CBS

TALK CBS시네마 전채관람가

6월 13일, 전국 극장 대개봉